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학회장 퇴임사



■ 임운택
(학회장/계명대)

존경하는 비판사회학회 회원님들께,

신임회장 인사말을 쓴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퇴임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가분하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했는지 되돌아보면 진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연구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오롯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과 함께 크게 공약 3개를 내걸었습니다.

1. 학회 내 연구자 모임 활성화
2. 자본주의 대전환시기의 이행기 전략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진단 - 국제학술대회 개최
3. 학문 후속세대 간 소통 강화 - 하계 학술대회와 비판사회학교

역순으로 평가하면, 학문후속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하계 학술대회와 비판사회학교는 올해도 상황리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연구재단의 판지결기로 암초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운영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무난하게 완료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다음면 계속)

다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장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지는 유보적인 듯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첫 번째 공약인 연구자 모임 활성화와 연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자 모임의 이름을 애초에 무엇으로 지었던 두 팀의 역할은 현존 사회문제의 ‘진단’과 ‘대안’으로 보았는데, 처음 하는 시도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팀별로 주제를 정하고 추진을 하기에 다소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신임 서동진 회장님께서 이 연구팀을 개편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기로 하셔서 지금보다는 더 활기찬 학회의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한가지 소회를 밝힌다면, 여전히 비판사회학회가 소위 낡은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새로운 것은 도래하지 않은 ‘유기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비판사회학회의 기능과 참여, 운영방식을 두고 여러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동력은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어느덧 운영위원의 세대별 구성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이제 학회 운영의 중심은 운영위원 손에 달려있습니다. 회장이 누가 되든 운영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학회 활동의 방향에 대한 의지 없이는 항상 학술대회-워크숍으로 구성되는 일상업무 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사회학회와 여전히 차별화를 보이는 비판사회학회가 그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환시대에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재구성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학회 내의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제도권의 학술환경이 변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연구자는 연구재단과 각종 기관의 프로젝트에 받을 담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게 냉혹한 현실이고, 그런 과정에 포섭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존의 이론적 프리즘을 통해 현실을 재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연구가 다량 발생합니다. 한국의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이론은 서론과 연구방법론에만 존재합니다. 정작 본문은 선호하는 이론에 기대어 양적, 질적 방법론으로 채우고 실제로 이론에 대한 검증과 반박이 실종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또 새로운 해외 이론에 기대야 합니다. 기업이 한국을 세계 10위의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라도 했다면, 비판 이론은 여전히 서구이론의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보는 프리즘을 상호연계하여 다면체 사회를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퓰리즘 연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수년 전 수입된 이 논의는 결국 유럽 극우주의 운동을 소개하고, 국내 우파단체가 가지는 위험성을 진단하는 정도로 그치고 결론은 항상 시민교육 강화로 끝납니다.

(다음면 계속)

몇 개 보고서와 논문을 읽다 보면 저도 심드렁해집니다. 그런데 극우주의의 칼날이 겨냥하고 있는 이주민, 소수자와의 연구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노동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는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전환으로 서비스직까지 이주노동의 여파가 미치게 되면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 또한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동훈 현 법무장관은 이주민에 대한 선거권 철회를 암시한 바 있습니다. 10년 내로 이주민 자녀들의 정체성 운동이 상당히 큰 반향을 가져오리라는 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한편, 운동정치에 대한 비판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연대의 틀을 가져오느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닌 듯싶습니다.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만, 비정규 교수/연구자에 대한 학회의 기회구조가 활발하게 열려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연구자간 협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성찰과 비판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하던 방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연구자간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부족하나마 한국사회와 지역사회, 세계사회를 씨줄 날줄로 엮는 의미있는 이론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항상 그래왔듯 약자와의 연대도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투쟁과 화물연대, 그리로 앞으로 있는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박에도 지금처럼 특정 연구자가 아닌 학회가 목소리를 내는 끈끈한 힘을 앞으로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했지만, 이정연 연구위원장님, 홍성태 운영위원장님 이 두 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이번에 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준비과정에서 강민형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행사를 무사히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전북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 조은주 선생님의 지원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인이 부회장님의 촌철살인 같은 코멘트도 항상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 너무나 기쁘지만, 제 학술연구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을 줄이겠습니다.

2022년 임운택 드림.

2022년 가을국제학술대회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2022년 가을국제학술대회

■ 김민정 (편집위원/충남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안정보다는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자유주의 경제사가 애덤 투즈조차도 팬데믹, 금융위기, 전쟁 등을 일컬어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는 대공황, 세계대전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 여기에 제국주의 간 갈등 심화, 기후위기, 팬데믹위기, 생계비위기 등이 있다. 그가 제시한 붕괴(Crashed)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체제의 재생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붕괴는 사회 계급의 결을 따라 흐른다.

이러한 징후를 포착한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의 전체 주제는 ‘21세기 자본주의의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였다. 디지털 전환이 장기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면, 그린 전환은

아래로부터 형성된 기후정의운동의 압력으로 지배계급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러한 두 전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진단하고 향후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

학술대회는 기획1 <녹색사회 전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기획2 <쌍둥이 전환과 한국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기획3 <국경의 일상화, 국가-시민사회의 역할>, 기획4 <전환시대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기획5 <그린전환의 통치성과 인간 너머의 과제> 등과 기획+일반, 일반, 특별 집담회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제학술대회로 해외 학자들도 참여했다. 클라우드 되레(예나대)는 “협공에 포박된 위기: 산업계급 갈등으로부터 사회생태적 전환”, 홍호평(존스홉킨스대)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프레너미: 미중 무역전쟁의 기원으로서 첨단기술기업”을 발표했다.

(다음면 계속)

필립 슈탐(훔볼트대)이 “대항 헤게모니적 신자유주의: EU 플랫폼 규제 이해하기”, 아론 베나나브(시라큐스대)가 “전략적 경쟁의 시대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 히데히로 야마모토(쓰쿠바 대학)가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있어서 일본의 민주주의”를 발표했다.

전체 주제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린 전환이 디지털 전환보다 비중이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분석이 다소 적었으며, 클로징 세션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의 관계 및 교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현재 한국 사회과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팬데믹위기 시대에 사회학자에게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연구 주제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때 정책영역에서는 두 전환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전체 주제가 던진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젊은 연구자 등 비판사회학회원들과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이후 학술대회 조직에서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단적인 예로 기획세션임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비판사회학회원들의 참여가 적었다. ‘인간 너머’라는 주제가 주는 생소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일부 세션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매우 아쉬웠다.

실증주의에 기초한 사례연구가 넘쳐나고 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진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학술행사가 줄어드는 시기에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마련한 뜻깊은 자리가 향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

경향신문

“빅테크 기업의 시장 통제로 불평등 악화...국가가 노동자 보호해야”...홍호평·베나나브·슈탐·임운택·강민형 좌담

입력 2022.11.17, 오전 7:01 수정 2022.11.17, 오전 9:26 기사원문

| ‘비판사회학회’ 세계 석학 초청...디지털-그린 전환의 미래를 논하다

비판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4-5일 개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 전환의 가속화”가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디지털-그린의 ‘이중전환’ 탐색하는 학술대회 열린다...비판사회학회 주최 4-5... 비판사회학회 국제학술대회 ‘디지털-그린 전환과 사회의 미래’가 4-5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열...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211021501001>

최근 <제국의 총돌: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를 출간한 홍호평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를 쓴 아론 베나나브 미국 시라큐스대 교수도 참석했다. 필립 슈탐 훔볼트대 교수는 독일에서 주목받는 사회학자다. 경향신문은 임운택 비판사회학회 회장(계명대 교수), 강민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좌담을 지난 4일 진행했다.

‘불평등을 강화하는 플랫폼 기업’ ‘디지털 감시와 노동자 압박’ ‘미국의 사회주의 부상’ ‘마중 갈등과 세계 경제’ ‘파시즘과 민주주의’ 같은 거시 문제를 압축적으로 논의했다. 사회는 임 회장, 통 번역은 강 위원이 맡았다. 다음은 좌담 전문이다.



기사보기

제26회 콜로키움 / 정기총회

제26회 콜로키움

“비판사회학회, 어디로 갈 것인가? 변화를 위한 제언”

- 발제 1. 전원근(제주대)_비판사회학회 2022년 연구 소모임에 대한 성찰과 대안
- 발제 2. 박찬중(충남대)_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의 연구분과체제로의 재편 필요성
- 발제 3. 김민정(서울시립대)_다중 위기 시대, 학술지 <경제와 사회>의 역할과 과제



12월 10일(토) 고려대학교에서 정기총회 사전행사로 콜로키움이 열렸다. “비판사회학회, 어디로 갈 것인가? 변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진솔한 토론이 오갔다. 연구위원장(이정연, 서울여대)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부회장(서동진, 계원예대)과 운영위원(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6회 콜로키움 / 정기총회

2022년 비판사회학회 정기총회

2022년 주요 활동보고

■ 운영위원회

- 콜로키움 5회 개최(3월, 4월, 5월, 10월, 12월)
- 비판사회학교 3과목 운영(수강생 총 93명)
- 하계학술대회 개최(8월 18-19일, 전북대학교)
- 가을국제학술대회 개최(11월 4-5일, 한양대학교)
- 소식지 4회 발행(44호, 45호, 46호, 47호)
- 비판사회학교 강의록 출판(2권)
<비판사회이론: 경제학비판>(한울아카데미, 2022)
<세계화와 사회변동>(한울아카데미, 2022)
- 연구팀 지원사업(한국자본주의성격진보정책연구모임)
- 공동주최 학술회의 3회 개최
- 학회사무실 연남동 이전

■ 편집위원회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지원금 1,000만 원 수혜
- 2022년도 학술지재인증평가결과 '우수등재학술지' 유지



제6회 비판사회학회.김진균 학술상 시상식



회원 감사패 증정식
(장흥근, 정근식, 조형제, 공제욱)

2024년 차차기 회장선거 당선자



■ 당선자: 최현 (제주대 사회학과)

■ 주요 약력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사회학 박사
-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2003-2007)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2006-2007)
- 제주대 사회학과 조교수(2007-2011)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2015-2019)
- 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센터장(2011-현재)

■ 주요 공약

- 비판사회학의 가교 역할 강화
- 정기학술대회와 콜로키움 내실화
- 비판사회학회 회원들 간의 학문적 교류 채널 확대

제6회 비판사회학회.김진균 학술상 수상논문

취미에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

〈경제와사회〉 133호 (2022년 3월)

노성철(일본 사이타마대학교), 류연미(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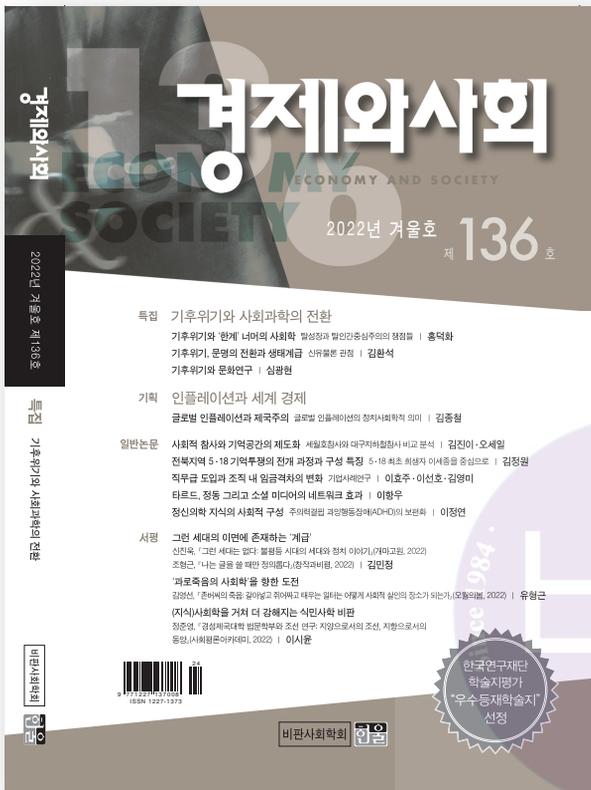
플랫폼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역기반 각 노동 플랫폼의 사례를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주로 조명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온라인기반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특히 횡단적 연구에 그쳤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 온라인 노동 플랫폼으로의 이행부터 온라인 미세작업에 대한 몰입이 심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맺는 관계의 양상이 진화하는 동태적 과정을 이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에서 일하는 18명의 청년 노동자들을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면접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청년 노동자들이 오프라인 일자리와 비교해 유연성-자율성-공정성 측면에서 온라인 클라우드 노동을 높이 평가해 플랫폼에 진입했고, 진입 이후에는 신뢰 구축-전략적 행위자 되기-게임화 과정을 거쳐 온라인 미세작업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몰입 단계에 접어든 노동자들은 플랫폼 진입 동기로 작용했던 유연성, 자율성, 공정성 측면에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작업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이를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으로 개념화했고, 그것이 플랫폼 노동과 청년 노동자의 불안정성 연구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했다.

원문링크

■ 심사평

일과 놀이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있는 듯한 청년 디지털 노동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을 통해 이 논문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현장과 노동자를 드러내면서 현재의 노동에 대한 이해와 미래 노동의 형태에 대한 심화된 논의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과 삶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경험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 연구로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플랫폼 미세작업의 젠더화된 성격, 청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와 경험의 차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구체적인 통제양식, 온라인 클라우드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 등 앞으로의 풍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게 만드는 논문이다.

〈경제와사회〉 136호(겨울호) 목차



〈경제와 사회〉 링크

■ 특집: 기후위기와 사회과학의 전환

기후위기와 '한계' 너머의 사회학 탈성장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쟁점들

홍덕화

기후위기, 문명의 전환과 생태계급 신유물론적 관점

김환석

기후위기와 문화연구

심광현

■ 기획: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제국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김종철

■ 일반논문

사회적 참사와 기억공간의 제도화: 세월호참사와 대구지하철참사 비교 분석

김진이, 오세일

전북지역 518기억투쟁의 전개 과정과 구성 특징

5.18최초 희생자이세종을 중심으로

김정원

직무급 도입과 조직 내 임금격차의 변화: 기업사례연구

이향주, 이선호, 김영미

타르드, 정동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효과

이향우

정신의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보편화

이정연

■ 서평

그런 세대의 이면에 존재하는 '계급'

신진옥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개마고원, 2022)

조형근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장작과비행, 2022)

김민정

과로죽음의 사회학을 향한 도전

김영선 <존버의 죽음: 같이 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타는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오월의봄, 2022)

김형주

(지식)사회학을 거쳐 더 강해지는 식민사학 비판

정준영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조선 연구: 지양으로서의 조선, 지양으로서의 동양>(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이시윤

『경제와사회』 136호(2022년 겨울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적 상상력과 기후위기, 그리고 사회학적 상상력

■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양대)

작년 7월,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내일의 전쟁(The Tomorrow War)〉(또는, 〈투모로우 워〉)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아마존에 팔아넘겨 디지털 공개된 이 영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지금 한창 진행 중인-경기장에 30년 뒤의 미래에서 타임점프해 온 군인들이 나타나 외계 종족과의 전쟁에서 멸종할 위기에 내몰린 미래의 인류를 현재의 인류가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된다. ‘화이트 스파이크’라 불리는 이 전투 기계 같은 외계 생명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 등장해 흡사 여왕벌 같은 암컷의 지휘 아래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며 인간을 잡아먹고 문명을 파괴한다. 미래 세계의 멸망이 거의 확실해지고 ‘점프링크’도 파괴되어 시간여행도 불가능해졌을 때, 주인공과 그 동료들은 화이트 스파이크의 발톱에서 서기 946년에 폭발한 백두산의 화산재를 채취해 내고, 이 외계 생명체들이 이미 천년도 더 전부터 러시아 북부의 빙하 밑에 줄곧 존재해 있다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동되어 지상에 출현한 것임을 밝혀낸다.

할리우드의 상상력은 발 빠르게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을 영화 상품의 소재로 숨쉴 좋게 요리해 내고 있다. SF 호러 영화의 고전 〈에일리언(Alien)〉 시리즈의 외계 괴물들의 백색 변종이라 할 화이트 스파이크들은 커다란 벌레 또는 파충류의 형태를 띤 전투 병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때를 지어 맹목적이고 저돌적으로 인간들을 추격하고 공격해 잡아먹는 그것들의 움직임과 속성은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선 쉽게 바이러스를 연상시킨다. 영화 속에서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해상 기지를 공격하는 이 외계 종족들의 거대한 무리는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 〈월드워Z(World War Z)〉(2013)의 좀비 무리를 떠올리게 하는데, 유전자공학과 생명자본의 시대에 다른 괴물들을 밀어내고 대중문화의 모든 공포물을 장악한 지금의 좀비는 무엇보다 바이러스와 감염에 상상적 몸체를 부여하는 형상이다.

(다음 면 계속)

그리고 이 영화의 외계 생명체들이 시각화하는 바이러스의 은유는 현재의 기후위기 또는 유례없이 심대한 기후변화와 결합되어 있다. 1000년 이상 러시아의 빙하 밑에 동결되어 있던 외계의 괴물들이 온난화 덕에 지상으로 올라와 인간을 공격한다는 설정은 바로 2016년 시베리아에서 75년 만에 탄저병이 발생해 2000마리 이상의 순록이 폐죽음을 당하고 12세 목동까지 사망했던 사건을 상기시킨다. 당시 이상고온으로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사체가 노출된 것이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극지방의 얼음과 곳곳의 빙하 지역이 해빙되면서 영결의 세월 동안 단단한 얼음과 만년설로 덮여있던 지표면이 드러나고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려 물이 흐르고 땅이 물렁거리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태고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이런 우려를 가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든 셈이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당면해서 할리우드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온난화가 대중적 화두가 되자 곧 기후재난을 소재로 한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2004)를 만들어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인간의 생존 의지를 가족애를 내세우며 찬양하더니, 몇 해 전 <지오스톰(Geostorm)>(2017)이란 영화에선 인류가 지구 전체를 덮은 인공위성망을 구축해 기후를 통제하는 근미래의 세계를 그려보였다. 물론 인간의 욕망은 이 기후 제어 장치를 전 지구적 이상기후(‘지오스톰’)를 일으켜 인류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전도시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영화는 과학기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근거한 생태근대화론, 또는 예전의 환경관리주의의 판타지를 펼쳐보인다. <지오스톰>의 이 판타지는 마냥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인데, 영화 속에서 인류가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린 이 거대한 기후통제 위성망 ‘더치보이’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구축하고 있는 ‘스타링크’와 필연적으로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2018년부터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판타지는 현실을 지탱하고 틀 지어주므로, 판타지와 현실은 원래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탈현대적인 현대’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판타지와 허구가 곧잘 현실과 구별되지 않으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진화해 온 과학기술 덕분에 현실이 곧 SF인 세상에 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후위기는, 이런 말 자체가 한가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처럼 공상과학 판타지화된 현실의 백미, 가장 극적이고 어두운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도래한 묵시록적 미래로서의 기후위기는 영화적 상상력 못지않게 사회과학에도 보다 대담한 상상력을 요구한다. 재난과 같은 상황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심대한 기후변화가 지구 생태계와

(다음 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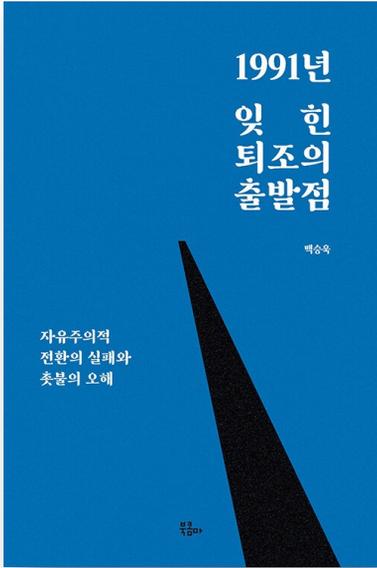
인간들의 세상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가늠하고 역으로 인간 문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해 우리의 집합적 삶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예를 들어 인류세 같은 개념이 말해주는 것처럼 시공간적 범위가 방대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수집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바탕에만 안주할 수 없는 심도 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삶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유에 대해 근본적 전환과 지평의 확장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감성의 직관과 오성의 범주적 판단을 연결하고 이성의 논리적 사유를 초청하는 상상력 말이다.

이번 호 특집 ‘기후위기와 사회과학의 전환’은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해 자연과 인간, 자연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사회적 삶에 대한 인식과 사유에 있어서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적 전환의 시도들을 살펴본다. 홍덕화의 「기후위기와 ‘한계’ 너머의 사회학: 탈성장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쟁점들」은 탈성장과 탈인간중심주의의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사회학의 제반입장들을 검토한다. 김환석의 「기후위기, 문명의 전환과 생태계급: 신유물론 관점」은 신유물론을 소개하며 근대문명에 종언을 고하고 생태문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심광현의 「기후위기와 문화연구」는 인간의 다중지능과 역량들의 네트워크에서 자연과 문명의 악순환 관계를 벗어나는 일상적 실천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 외에도 인류세 개념에 대한 검토, 기후위기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입장과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다룬 글들도 기획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신지 못해 매우 아쉽다. 《경제와사회》는 이번 특집의 이론적 접근에 이어 다음 137호 특집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쟁점들을 다루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회원신간소개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자유주의적 전환의 실패와 촛불의 오해

북콤마, 2022년 12월, 240쪽

목차링크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1991년은 1987년 위기의 정세에서 통치 집단이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려 시도한 시점이었다. 1991년을 다시 보려는 것은 어떤 '자유주의적 전환'의 시도가 있었고 그 제도 편제들의 유산이 지금도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은 현 제도와 구조가 형성된 출발점이었다. 책은 1991년을 '잊힌 퇴조의 출발점'으로 규정한다. 2017년을 1987년에 바로 이어 붙여 승리의 역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기 그지없을 이런 이의 제기는 현 시점 한국 사회의 현실을 되짚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에 따라 그 제도 질서의 지양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책은 자유주의적 전환의 세계적 맥락에 대한 질문을 한국화하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유주의의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묻는 데로 나아간다.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

사회학자 조은의 노트가 있는 칼럼

파이돈, 2022년 11월, 284쪽

목차링크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 교수의 칼럼은 연재 내내 독자들에게 잔잔한 파장과 감동, 공감과 불러일으켰다.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 읽어도 공감과 흡입력을 자아내는 저자의 글은 시사적인 문제나 소수자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에 대해 글쓰기 특유의 식견과 안목을 발휘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의 단서를 열어 준다. 따뜻하고 진솔하지만 예각이 있는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겸허함과 공감대를 자아내는 글쓰기는 책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이 사실 "얼마나 가볍고 또 무거운가"라는 문제 의식을 환기시킨다. 아울러 "공통된 의미 지평을 잃어버린 통약 불가능한 비극적 공동체로 가는 징후"로서의 지금, 현재를 진단한다.

회원신간소개



5.18 다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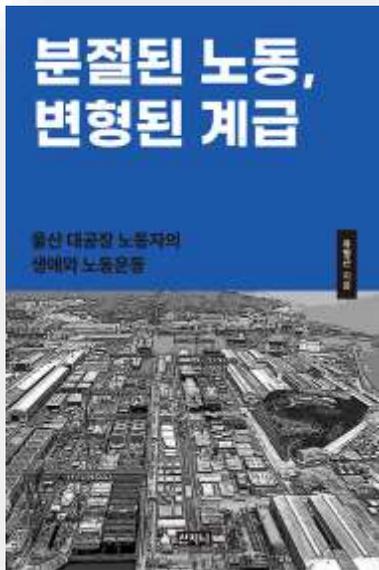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집단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오월의봄, 2022년 12월, 292쪽

목차링크

김명희 외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5.18 다시 쓰기』(오월의 봄, 2022)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2020~2021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조사 연구」(2021)의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책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담론과 치유적 실천에 자리한 두 가지 인식론적 공백 지점에 주목했다. 첫째는 국가범죄 피해의 인권침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야기한 고통을 다루는 데 적절한 관점과 개념의 부재이며, 둘째는 이들의 고통에 깊이 있게 다가설 연구방법론의 부재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구팀은 인권의 관점에서 5·18 피해자 유형학을 재구성하고 집단트라우마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켜 보고자 했다.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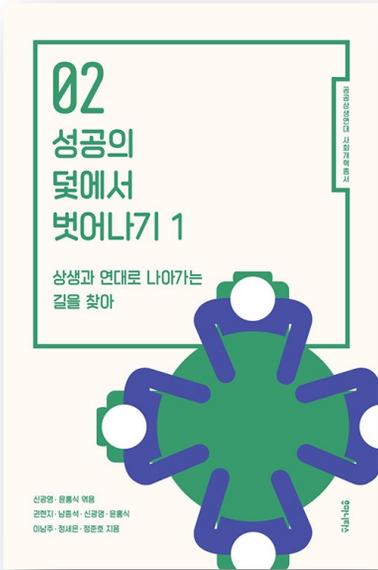
산지니, 2022년 10월, 512쪽

목차링크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울산은 한국의 최대 중화학 공업도시이며, 노동운동의 중심지였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의 대공장 노동자의 생활과 의식, 노동운동을 노동계급 형성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이 지나온 행로를 이해하고 오늘날 그들의 집단적 실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저자는 계급이 구체적인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계급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 울산의 대공장 노동자들의 계급상황, 집단 정체성, 집합행동의 세 가지 층위들 각각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작업장의 노사관계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생활 영역을 분석함으로써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삶과 그들의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분석한다.

회원신간소개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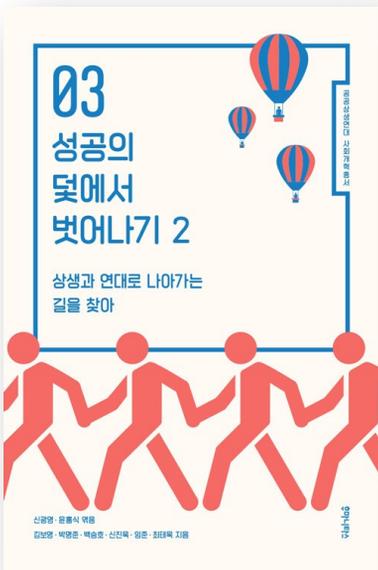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

후마니타스, 2022년 11월, 352쪽

목차링크

신광영 외 (중앙대 사회학과)

첫 번째로 펴낸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 역진적 선별 복지 of 정치·경제적 궤적>(2022년 5월)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성공의 덫'의 형태와 원인,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이 책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1,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각 공공상생연대 사회개혁총서 2, 3. 이하 1권, 2권)는 '성공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청사진을 그린다. 한국 사회가 이제껏 쌓아 온 성공의 방법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대안적인 비전을 모색해 본다. 1권에서는 대안 비전의 개념과 형태를 알아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덫'을 다뤄야 할 필요성을 논하며, 국제 질서, 산업 생태계, 서비스산업의 형태, 노동 체제, 조세 재정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그린다.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기 2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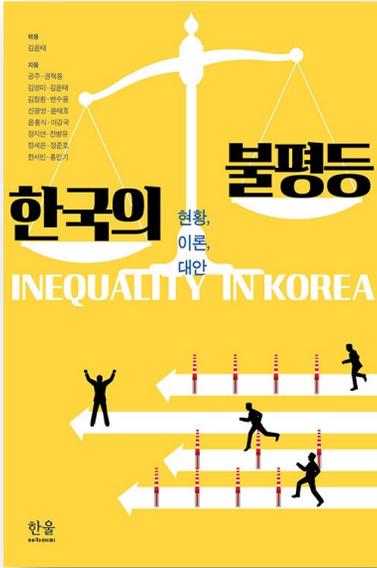
후마니타스, 2022년 11월, 348쪽

목차링크

신광영 외 (중앙대 사회학과)

2권에서는 각각 소득 보장 제도, 사회 서비스, 보건의료, 정치사회적 구조, 정치제도, 사회적 대화 체제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비전의 모습을 논한다. 집필에는 신광영(중앙대), 윤희식(인하대), 신진욱(중앙대), 최태욱(한국리버럴아츠센터), 임준(서울시립대), 백승호(가톨릭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김보영(영남대)가 참여했으며,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정책연구를 지원하였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노동사회 속 약자를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회원신간소개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한울아카데미, 2022년 9월, 248쪽

목차링크

신광영 외 (중앙대 사회학과)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악화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격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 <한국의 불평등>은 이처럼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 위기 속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전망을 구하는 책이다. 다양한 개념적·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평가하며 한국의 불평등 특징과 원인을 분석했다. 독자들은 최신 연구를 한데 모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도와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불평등과 빈곤 현실

박영스토리, 2022년 11월, 244쪽

목차링크

이성균 (울산대 사회학과)

각종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현실을 설명하는 책이다. 전통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주거, 건강, 불평등 인식 등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 현실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식 등 매우 많은 항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에 쓴 논문들을 수정하고 최근 현실을 설명한 글을 추가하였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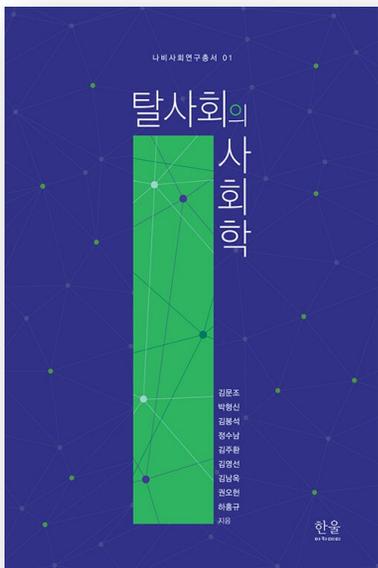
특권 중산층 한국 중간계층의 분열과 불안

창비, 2022년 11월, 276쪽

목차링크

구해근 (하와이대학 사회학과)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적 양극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특권 중산층'의 계급적 특징을 분석한 책이다.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자 동아시아 노동연구의 선구자로 주목받아온 저자 구해근이 오늘날 한국 중산층 계급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며, 한국사회의 계급동학을 주도하며 부상한 신흥 상류 중산층을 '특권 중산층'이라 명명한다. 저자는 특권 중산층이 지닌 계급세습에 대한 욕망과 근본적인 불안을 분석하고, 이들의 계급적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파헤친다. 이 책은 2022년 7월 미국에서 발간된 *Privilege and Anxiety: The Korean Middle Class in the Global Er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한국의 현실을 더욱 면밀히 반영해 국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구해근이 눈여겨본 특권 중산층은 한국의 중간계층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탈사회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22년 9월, 392쪽

목차링크

김주환(동아대 기초교양대학), 정수남 (전남대 사회학과) 외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탈사회 현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탈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혼술 유행, 나 홀로 스포츠 관람 증가, 데이트앱 진화, 인공지능 발달, 플랫폼 노동자 증가, 고독사 등에 각각 주목한다. 기존의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별화, 파편화, 소외 등의 개념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구조적 압력에 의한 고립이나 배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적극적인 '개인화'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 책은 오늘날의 탈사회 현상이 파편화와 개인화의 변증법적 산물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사회학자가 다양한 분야의 탈사회 현상을 연구·분석한 결과물이다.

신입회원

(9월~12월)

- 정회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오세일 (서강대 사회학과) 조광자 (군산대 산합협력단) 정진영 (경상국립대 정치경제학과) 유성희 (한경대 브라이트칼리지) 지정애 (성공회대) 현우식(제주대 사회학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김진이 (서강대 사회학과) 이지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한인정(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박진영 (성공회대) 김현영(제주대 사회학과) 김세진 (희망제작소)
---	--

- 준회원 박수민 (Southern Illinois Univ.)

회원현황

(12월 31일 현재)

- 총회원 291명 (정회원 256명 / 특별회원 13명 / 준회원 19명 / 기관회원 3개)
-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 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회원 회비: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9월~12월)

- 9월 15일 5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9월 21일 운영소위원회 9차 회의
- 10월 15일 6차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제25회 콜로키움
- 10월 25일 운영소위원회 10차 회의
- 11월 4~5일 2022년 비판사회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 11월 12일 운영소위원회 11차 회의
- 12월 4일 운영소위원회 12차 회의
- 12월 10일 제26회 콜로키움
정기총회

〈경제와사회〉가
회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근조기 대어

운영위원회에서 학회근조기를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근조기가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운영위원회(sansahak1984@gmail.com)로 연락주시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학회가 부담합니다.



2022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 | | | |
|----------------------|-------------------|-----------------|
| 회장 임운택(계명대) |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 부회장 서동진(계원예대) |
| 운영위원장 홍성태(고려대) | 연구위원장 이정연(서울여대) |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
| 연구위원 김명수(전남대) | 연구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
| 연구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 연구위원 육주원(경북대) | 연구위원 이태정(성공회대) |
| 연구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 연구위원 조은주(전북대) |
| 정책위원 강민형(한국노동연구원) | 정책위원 김재형(방송통신대) | 정책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
|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 정책위원 박치현(대구대) | 정책위원 백영경(제주대) |
|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 정책위원 이도훈(연세대) | 정책위원 이정은(창원대) |
| 정책위원 정수남(전남대) | 정책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 |
|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 편집위원회

- | | | |
|--------------------------------------|-----------------|--------------------|
|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
|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 김민정(성공회대) |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
|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 편집위원 김철효(전북대) |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
|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
|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
|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 편집위원 최 현(제주대) |
|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 |
|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 |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
|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 |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